| 불자 세상보기 |

청소년 범죄, 연기적 접근 필요하다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잔혹한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
서울 · 강릉 등서 유사 사건 확인

잘못 모르는 비도덕적 행위 증가
잔혹하고 사악한 청소년 폭력행위
'도덕적 위기' 韓사회 성찰 있어야

소년법 개정, 사회 윤리적인 접근
개인 인성 · 윤리 · 도덕 함양이 유용
연기 · 중도적으로 現 문제 다뤄야

"어린 여중생이 이렇게 잔인하고 영악할 수가 있을까?" 부산 여중생 폭력사건의 보도를 접하면서 참혹한 기분이 든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사건이 특정 지역의 사건이 아니라, 서울, 강릉, 세종 등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나타나지 않고 잠복 은폐되어 있는 사건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도덕의 문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善)에 대한 관심보다는 악(惡)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도덕성의 유형을 사악함과 나약함의 두 가지로 나누어 악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근래에 비도덕적 행위들을 유형화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서 효과적인 도덕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마일로(D. Milo)라는 학자는 행위자가 자신의 도덕성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 비도덕성의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자신의 행동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유형으로 '외골수적 사악함', '도덕적 태만', '무도덕성'으로 나누고 있다. 잘못을 알고 있는 경우로는 '선호적 사악함', '도덕적 나약함', '도덕적 무관심'으로 나눈다.

문제는 오늘날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비도덕적 행위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범죄뿐만 아니라 성인 범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전철 안에서 노인을 앞에 두고 졸고 있는 척하는 청소년의 도덕적 나약함이 아름답게 보인다. 도덕성 타락에 대한 개탄의 소리는 유사 이래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의 저술 속에 항상 있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범죄 사건을 보면 그동안의 위안이 안이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 두려운 것은 이런 사건들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심성의 황폐함이 지각을 뚫고 분출하기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잔혹하고 사악한 폭력 행위를 한국사회에 대한 도덕적 위기 문제에 대한 고뇌와 성찰 없이 단순한 청소년 범죄로 접근한다면 찢어진 거미줄을 손가락으로 수리하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잔인한 청소년 폭행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도덕성 회복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초점을 둔 '개인 윤리적 차원'과 사회구조와 제도에 초점을 둔 '사회 윤리적 차원'으로 나눌 수 있다. 소년법 개정은 사회 윤리적 차원의 방법이다.

개인 윤리적 차원은 가정 · 학교 · 종교 · 매스컴 등 사회화 기능의 윤리화라는 장구한 성격의 과제인 반면, 제도와 정책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단기간 안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취지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소년범에 대한 처벌 연령을 낮추고 강화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자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견이 다양하다. 이러한 논의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지금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제도가 있지만 그 실천 내용이 부실하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학생의 학업 중단을 막고자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 청소년을 건전한 재사회를 유도하고자 하는 '청소년보호관찰 제도' 등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어느 청소년 범죄자는 자신이 보호관찰 대상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범죄이론에 낙인(烙印)이론이 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오히려 더 큰 범죄자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요란을 떨면서 너무 크게 접근하는 것 같다. 청소년 범죄는 크고 작은 다양한 조건이 얽혀 있는 문제이다. 그야말로 연기와 중도의 지혜가 필요한 곳이다.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구체적인 실천의 마당에서 연기와 중도의 지혜가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찌하랴. 연기와 중도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중생의 세계가 아득하게 느껴진다.

社說

마지막 될지 모른 간선제, 공정선거로

제35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가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불교 안팎에 차기 총무원장선출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계종 집행부가 9월 11일 공정한 선거 집행을 천명했다.

이번 집행부의 엄정 중립 및 공정선거 집행 천명은 불교 각계에 주는 하나의 메시지와도 같다.

가장 먼저 전국 각 지역본사에서는 이미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선거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대적 사명감과 선거 풍토 발전을 위해 엄정한 법적용 등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권자이며 유권자인 중앙종회의원들과 각 본사의 선거권자들은 어느 선거보다 불교 변화와 맞닿아 있는 이번 총무원장 선거를 깨끗하게 진행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조계종은 2017년 직선제와 추대제 도입을 화두로 대중공사를 지속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현행 간선제의 유지였다. 대중공사에서는 다양한 간선제의 부작용이 지적됐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선거공영제와 같이 현행 간선제를 보완하고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나 제도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번뇌는 보리이며, 위기는 기회다. 현행 간선제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내는 것은 불교 종단사에 있어 새로운 역사를 일궈내는 것과 같다.

조계종 집행부가 공정선거를 천명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권자, 불교시민사회와 많은 불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후회 없는 선거행사로 치러야 한다. 우리는 환골탈태하는 자세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위한 새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어쩌면 간선제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제35대 총무원장 선거가,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로 평가 받기를 기대한다.

금강대, 기득권 놓고 신뢰 쌓기부터

천태종립 금강대의 총장 공석이 길어지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 D등급과 '막말 파문' 총장사태를 겪은 금강대로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명망 있는 인사를 총장으로 초빙해야 하니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의 금강대는 분명 개교 이래 최대 위기다. 단순히 수장 하나 바뀐다고 위기서 벗어나길 바란다면 그것은 막연한 환상에 불과하다.

진정 구습(舊習)을 떨쳐버리고자 한다면 금강대는 구성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를 단초로 삼아야 한다. 교수협의회와 교직원노조, 총학생회 입장이 같을 순 없겠지만 위기상황에서 서로를 손가락질 해봐야 나아질 것은 없다. 권리만을 주장할 게 아니라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부터 돌아보는 자세가 우선될 때 상호 신뢰와 대안 모색이 가능해진다.

주요 보직을 맡는 교수 측은 강의의 질을 지금보다 더 높이기 위한 절차탁마에 힘써야 한다.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강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제아무리 능력 있는 교수라 하더라도 경질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직원 측은 업무파악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명확한 행정안내를 제공해야 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대학교육문화와 행정시스템에 발맞춘 빈틈없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은 학교 측의 미흡함을 최대한 이해하고, 개인과 학교 명예를 높이기 위해 부가적인 학업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탓'은 이제 그만하자. 구성원 모두 근기에 맞춘 대기설법을 해줄 지도자가 없다면 부처님 가르침처럼 자등명법등명(自燈明法燈明) 하는 각고의 노력으로 학교 위상을 끌어올리기 바란다.



사유의 숲을 거닐며

민초 같이 꿋꿋한 개망초

송마나 작가

오죽 미운털이 박혔으면 망초(亡草)란 이름을 얻었을까. 내려쬐는 햇빛 아래서 어제는 콩밭, 오늘은 고추밭, 내일은 고개 너머 고구마 밭의 잡초를 매야 하는 아낙네. 그만 몸살이 나서 며칠 누웠다가 일어나니 온 밭이 망초로 가득하다. 아이고, 망할 놈의 망초야.

조선 말, 갑자기 온 들판과 논밭과 마당에 망초가 가득 퍼지더니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것은 모두 너 때문이야. 망할 망초야, 망초로도 성이 풀리지 않는구나, 이 개망초야.

석룡산을 오르는 계곡 좌우로 하얀 개망초 꽃이 군락을 이룬 모습이 장관이다. 드디어 개망초가 높은 고지를 향하여 일제히 진격하고 있다. 겉보기에는 순하고 여리게 느껴지는 잡초. 억세지 않고 가시가 없어서 낫을 휘두르면 가느다란 모가지가 댕강 잘려 나가고 손으로 잡아당기면 저항 한 번 못하고 뿌리 채 뽑힐 것 같다. 이런 개망초가 깊은 산속을 기어오르는 강인함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

개망초 꽃 한 송이는 왜소하고 볼품없어서 주위의 눈길을 끌지 못한다. 그러나 산등성이를 가득 덮은 하얀 군단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에서 소금을 뿌린 것 같다는 메밀밭만큼이나 애잔하면서도 위풍당당하다. 사람들은 이런 개망초를 천박하다고 지레 단정 짓는다.

개망초 꽃은 개체로서의 개념이 아예 없는 지도 모른다. 언제나 줄기에 옹기종기 붙어서 함께 꽃을 피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망초 한 포기가 뿌리를 내리면 그 주변은 삽시간에 군락을 이룬다. 이들의 민첩한 결속력이란.

바다를 건너 멀리 고향을 떠나온 외로움이,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빈 터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서서 한 핏줄을 불러들이는 것일까. 너와 나를 분별하지 않고 다함께 꽃을 피워 그들만의 세상을 펼쳐내는 순박한 꽃동네. 이 꽃밭에는 자랑, 허영, 큰 목소리 그리고 하얀 거짓말이 끼어 들 수 없다. 오직 순결, 정직, 정돈, 화합의 꽃송이가 하얗게 빛난다.

꾸밈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망초 꽃은 어린아이의 얼굴을 떠올리게 한다. 어둠의 그림자를 아예 모르고 해맑게 웃는 아이처럼 천진하다. 절망과 고난의 그림자를 찾아 볼 수 없이 평화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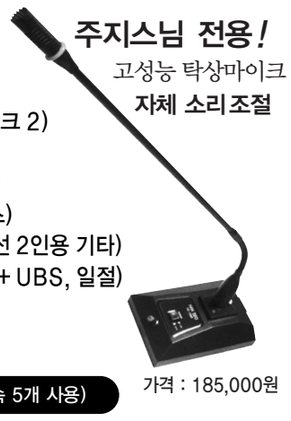
그들이라고 어찌 고달프지 않으며 천대받는 서러움에 눈물짓지 않겠는가. 망초도 엄연히 국화(菊花)의 핏줄을 이어 받았거늘. 그렇지만 세상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업신여기고 구박하여도 빈 마음으로 그저 웃을 뿐이다.

다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살아가야 할 터. 비록 망초의 모습이 여리고 애달플지라도 생명력만은 질기고 강인하다. 그 생명력이 세상의 틈새를 비집고 흙이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뿌리를 내린다.

석룡산 능선을 하얗게 덮은 개망초 꽃, 일제 강점기 때 고국을 떠나 이국땅에서 온갖 고난을 겪으며 살아남았던 조선 민초들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하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최신형 대출력 앰프로 보상 교환설치 실시!!
단 160만원 만 준비하시면, 현재의 앰프설비를
300만원대 고급음향 설비로 교체 해 드립니다
※ 설치 희망일 3~4 일 전에 예약 바랍니다. (종래 사용하던 앰프, 스피커는 보상, 회수해 옵니다!)
고출력 파워드 믹싱 앰프

USB탑제 최신형 800 왓트
법당 앰프설치비 가격표
(기본)
A형 : 93만원 (앰프, 스피커, 마이크 2)
B형 : 127만원 (A형 + 무선 1셋)
C형 : 158만원 (B형 + CD 5개용)
D형 : 185만원 (C형 + 믹서 + 케스)
법당 표준형 : 225만원 (D형 + 무선 2인용 기타)
최고급형 일절 : 325만원 (믹싱800 + UBS, 일절)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탁상마이크
자체 소리조절

가격 : 185,000원
무선마이크

CC 플레이어 (연속 5개 사용)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